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44\)](#), 2018.12, 407-438(32 pages)

[SILLASAHAKPO \(44\)](#), 2018.12, 407-438(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540>

APA Style

(2018). 창녕 관룡사의 역사와 . 신라사학보(44), 407-4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43.96.***

2019/12/28 16: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창녕 관룡사의 역사와 寺格

張日圭*

I. 머리말	IV. 관룡사의 寺格
II. 관룡사 관련 자료의 분포	V. 맺는말
III. 관룡사의 창건과 중창	

【국문초록】

관룡사의 연혁은 문화재와 문헌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불보살상이나 벽화 등은 8세기와 17세기 전반~18세기 중반에 조성되었고, 약사전, 대웅전, 원음각 등의 건물은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에 건립되었다. <관룡사사적기>에는 17세기~18세기 관룡사의 연혁이 전하고, 상량 문에는 15세기 전반~19세기 전반 관룡사의 상황이 담겼으며, 여러 문인의 문집에서도 17세기~20세기 관룡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현재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진평왕 때 이래로 지금의 관룡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찰이 자리하였다가 원효와 관련하여 '관룡사'라고 불렸다. 성덕왕 때 용선대에 조성·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을 찾는 순례자나 기도자들이

*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주요 논저 : <사천 다솔사의 연혁과 寺格> 《민족문화연구》 81, 2018 ; <신라 말 靑潭寺와 화엄 불교계의 동향> 《新羅史學報》 41, 2017 ; <신라 말 고려 초 禪僧의 시기별·지역별 활동 추이와 山門 형성 과정> 《新羅史學報》 39, 2017 ;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韓國古代史研究》 74, 2014 외 다수.

머무는 사찰로 기능하다가 경덕왕 때 중창되었고, 여러 불사는 혜공왕 때에도 설행되었다. 9세기에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조성되고, 약사전 석조여래좌상과 약사전 앞 3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 약사전 건립이나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의 봉안도 고려시대에 이루어졌다. 관룡사 법당은 6세기 이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이전까지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때 관룡사는 약사전만 남기고 모두 불탔다. 복원 불사는 17세기에 집중 설행되었는데, 이전의 건물을 중창하는 것 외에 새 전각을 집중 건립하였고, 불보살상을 제작·봉안하면서 주변 암자도 경내로 옮겼다. 점차 大刹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1704년(숙종 30) 7월에 주변에 많은 비가 내려 크게 훼손되었다. 그 뒤로도 복원 불사가 이어졌지만, 전각의 수나 규모는 이전보다 줄었다. 1749년(영조 25)부터 또 다른 불사가 설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733년에 <관룡사사적기>이 찬술되었다.

인양사처럼 창녕 일대 사찰은 창녕 일대 유력 세력은 물론 신라 조정이나 왕경의 사찰과 긴밀하였다. 관룡사에는 원효의 《화엄경》 강경 전승이 전해질 정도로, 반룡사, 옥천사 등 창녕 주변 화엄 사찰의 영향이 제법 미쳐 고려 말까지 유지되었다. 원효 전승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원효의 저작이 포함된 <초발심자경문>이 관룡사에서 간행되었다. 관룡사의 사격은 조선 전기에도 提高되거나 유지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전란과 홍수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 때 창녕 일대 불교계의 전통을 계승하는 불사가 꾸준히 설행되면서, 창녕 유력 세력은 물론 고령, 밀양, 대구 등지 문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일대의 주요 사찰로 자리하였다.

주제어 : 창녕, 관룡사, 관룡사사적기, 원효, 인양사, 화엄불교

I. 머리말

창녕은 한국 고대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삼한 여러 소국 가운데 不斯國이 자리하였던 이래, 가야연맹의 중추였던 非火伽倻이 위치하였

다. 송현동과 교동 고분군은 비화가야가 금관가야나 대가야와 함께 가야연맹의 핵심 세력을 이루었던 흔적이다.

창녕은 신라가 낙동강으로 진출할 때 교두보로 기능하였다. 곧 신라는 555년(진흥왕 16)에 창녕 일대를 병합하고는 下州를 설치하였고, 561년(진흥왕 22)에는 진흥왕이 직접 순수하여 척경비를 세웠다. 그 뒤 신라가 낙동강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하주를 옮겼지만, 창녕 일대에 대한 지배는 여전하였다. 그 흔적은 여러 문화재로 남아 있다.

현재 창녕 지역에 분포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2점, 보물 12점, 사적 4곳 등이며, 도 지정 문화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신라 진흥왕 척경비, 창녕 석빙고, 영산 만년교, 영산 석빙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불교 문화재이다. 그 가운데 6점이 관룡사와 관련되었는데, 관룡사에는 도지정 문화재 6점도 자리하고 있다. 관룡사는 창녕 일대의 대표적인 사찰인 셈이다.

관룡사는 ‘신라 8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성은 현재 관룡사에 전하는 문화재의 숫자와 무관하지 않다. 창녕 읍내에 자리한 인양사 사적비에는 순표가 인양사를 포함하여 여러 절의 金堂을 비롯한 여러 건물, 탑, 불상, 범종, 계단 등을 건립하거나 수리한 연도, 공사에 들어간 양식 등 40여 년 동안에 벌인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¹⁾ 특히 비문에는 건립과 보수에 곡식 15,595석 규모의 비용이 들었음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창녕 지역 불교계의 활동은 물론 관룡사가 ‘신라 8대 사찰’로 불리는 전승과도 관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관룡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나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²⁾ 또한 관룡사

1) <邑內石佛造像記> 《朝鮮金石總覽》 卷上, 49~50쪽; <昌寧仁陽寺石佛造像記> 《韓國金石全文》 古代篇, 156~157쪽; <仁陽寺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권3, 1992, 234~240쪽.

의 가람배치나 공간 구성, 벽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³⁾ 다만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룡사 연혁이나 그 불교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⁴⁾ 관룡사의 문화재 분포나 창녕 일대 불교계를 염두에 둘 때, 현재 관룡사의 문화재나 문헌 기록을 통해서 관룡사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전에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을 살펴본 바 있지만,⁵⁾ 관룡사의 신라불교사적 위상만을 살폈기에, 관룡사의 역사와 사격은 소홀히 다루었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관룡사와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창건 시기와 중창 과정을 살피면서,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관룡사의 사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Ⅱ. 관룡사 관련 자료의 분포

-
- 2) 河日植, <昌寧 觀龍寺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事蹟記》> 《韓國古代史研究》 12, 1997 ; 崔聖恩,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2009 ; 임영애,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新羅文化》 47, 2016 ; 박홍국,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풍우(風雨) 마모흔 고찰> 《科技考古研究》 22, 2016.
- 3) 文化財廳, 《觀龍寺 大雄殿 修理報告書》,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 해체수리 자료집》 사찰건축편, 2010 ; 하헌정·신현익·안영배, <관룡사 가람배치 및 외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권 4호, 1987 ; 유경희, <朝鮮 後期 白衣觀音 壁畫의 圖像과 信仰 研究> 《美術史學研究》 265, 2010 ; 崔卿賢, <19世紀의 寺刹 壁畫 研究－一般繪畫를 中心으로> 《文化史學》 38, 2012.
- 4) 金洗扈, <昌寧의 觀龍寺는 加耶佛教의 古刹일 것이다> 《伽耶文化》 4, 1994에서는 관룡사와 가야 불교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 5) 張日圭,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26, 2012.

현재 관룡사에는 대웅전, 약사전, 원음각 등의 전각,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나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등의 불보살상 등이 봉안되어 있다. 그밖에 약사전 앞 3층 석탑과 부도 등과 석장승, 대웅전 벽화 등도 전한다.

창녕 관룡사 대웅전은 보물 제212호로, 절 마당 북쪽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면·옆면 3칸에 팔작지붕을 올렸는데, 1구의 공포를 올린 왼쪽과 오른쪽 칸과 달리 가운데 칸 위에는 2구의 공포를 둔 다포식 가구이다. 건물 안에는 가운데 뒷줄에 高柱를 두고 그 사이에 佛壇을 설치하고 석가불을 주존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봉안하였다. 1965년에 보수 공사를 할 때 가운데 칸 마루도리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1749년(영조 25)에 마지막으로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대웅전의 서남쪽에 자리한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은 대웅전과 달리 서남향을 하고 있다. 앞면·옆면 1칸에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둔 주심포 가구로, 맞배지붕은 앞면보다는 옆면으로 길게 뻗어 특이하다. 1961년에 해체 수리하면서 상량문을 발견하였는데, 1821년(순조 21)에 최종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때 경내의 전각 대부분이 불탔지만, 이 건물만 유일하게 화재를 면하였다고 전한다.⁶⁾

대웅전에서 절 마당을 지난 남쪽 끝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인 圓音閣이 위치해 있다. 약간 서남향을 한 앞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은 다포식 가구로 팔작지붕을 올렸는데, 1층은 절 마당을 받친 축대와 연결된 반면 2층은 절 마당과 바로 마주하고 있다. 상량문에는 1763년(영조 39)에 최종 건립되었다고 쓰여 있다.⁷⁾

6)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萬曆壬辰 … 異哉 此寺之蕩於燹 如以鴻毛置爐炭 罔攸遺者 獨一藥師殿無恙 且其簷角有火焦痕”이라고 했다.

보물 제295호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은 관룡사에서 서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龍船臺 정상에 있다. 불상은 量感이 줄어든 신체, 도식적인 옷주름, 8각 연꽃무늬 臺座 양식, 앉은 자세의 둔중함 등으로 9세기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⁸⁾ 하지만 2009년에 관룡사 소장 문화재의 보존 처리 작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대좌에 남아 있는 銘文이 발견되었고, 명문 중에서 ‘開元十’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당나라 현종 때의 연호인 개원 10년~19년, 722년~731년에 조성되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⁹⁾

약사전 안에는 보물 제519호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의 대좌에도 ‘大曆七年壬子’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대력 7년인 772년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되었다.¹⁰⁾ 하지만 두터운 무릎, 어색한 손, 조형감의 퇴보 등으로 명문과는 달리 13~14세기에 새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¹⁾

대웅전 안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대좌와 함께 보물 제1730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상은 높이가 1.5~1.2m 정도로 큰 편인데, 엄숙함과 안정감은 약간 쇠퇴한 반면 어린 아이 같은 천진스러움이 담겨 있다. 오른쪽 협시불 아래에 있는 墨書에는 1629년(인조 7)에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¹²⁾ 또한 대웅전 안에는 벽면 전체를 채워 그린 보물 제1816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

7) 文化財廳, 앞의 책, 194쪽.

8) 秦弘燮, 《韓國의 佛像》, 國史編纂委員會, 1976 : 《韓國의 佛像》, 一志社, 2009, 249~250쪽 ;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372쪽.

9) 崔聖恩, 앞의 논문, 235~236쪽.

10) 河日植, 앞의 논문, 475~478쪽.

11) 黃壽永, 《國寶》 4 石佛, 藝耕出版社, 1989, 23쪽 ; 文化財廳, 앞의 책, 191쪽.

12) 文化財廳, 위의 책, 185쪽 <그림 4-1> 좌탁 기록문(영인).

보살 벽화가 있다. 이 벽화는 좌우로 넓게 퍼진 보관과 영락, 열은 수목으로 그려진 배경 등을 근거로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³⁾ 명부전에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76호인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이 보살 및 시왕상은 1652년(효종 3)에 조성되어 관룡사에 봉안되었다고 전한다.¹⁴⁾

약사전 앞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1호인 관룡사 약사전 3층 석탑이 있다. 높이 2m의 석탑은 2층의 받침돌 위에 3층의 몸돌을 올린 모습인데, 3단의 지붕돌 아래 받침 등 각 부분의 양식이 간략화하여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그밖에 절 주변에는 5기의 부도가 분포하는데, 이 가운데는 1741년(영조 17)에 건립된 祖安의 승탑과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가 포함되어 있다.¹⁶⁾

현재 관룡사에는 여러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다. 용선대나 약사전 안에 봉안된 불상은 양식에 따른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좌의 명문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8세기에 조성되었다. 반면에 약사전, 대웅전, 원음각 등의 건물은 대체로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에 건립되었고, 대웅전이나 명부전에 봉안된 불보살상이나 벽화 등은 이보다 앞선 17세기 전반~18세기 중반에 주로 제작되었다.

한편 관룡사와 관련한 문헌 기록도 전한다. 현재 관룡사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된 <관룡사사적기> 1권과 목판 11개가 보관되어 있다.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이라 불리는 사적기는 1733년(영조 9)에 申維翰이 관룡사 明學의 요청을 받아 1610년

13) 유경희, 앞의 논문, 214~215쪽.

14) 창녕군청 홈페이지 문화재현황 <http://www.cng.go.kr/tour/culture> 참고.

15) 文化財廳, 앞의 책, 202쪽.

16) 文化財廳, 위의 책, 203~205쪽.

(광해군 2)부터 1729년(영조 5)까지 여러 佛事를 시행한 내용과 주관자를 기록한 本文, 그리고 1774년에 學齡의 요청을 신유한에게 전한 내용을 담은 명학의 跋文, 마지막으로 관룡사에서 보관한 경전과 器物, 佛事 참여 인원과 비용 등을 적은 後錄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문에는 당·전·암자·요사 등을 짓거나 불상과 편액을 제작한 내용, 그림이나 단청을 그린 내용과 함께 이에 참여한 사람이나 공을 들인 사람 등이 적혀 있어서, 17세기 전반~18세기 전반 관룡사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전후의 내용은 사적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밖에 대웅전, 약사전에서도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대웅전의 상량문에는 세 번 중창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약사전의 상량문에도 세 번 중창되었다고 기록되었다. 두 건물은 상량문에서도 대체로 17세기~18세기에 다시 건립되었음이 확인되지만, 특히 대웅전은 15세기 전반에, 약사전은 16세기 전반과 19세기 전반에도 꾸준히 다시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히 문화재 자료와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때, 현재 관룡사와 관련된 자료는 대체로 15세기 전반~19세기 전반, 곧 조선시대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룡사 관련 문헌 기록은 문화재 자료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다. 그것은 훼손되거나 散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관룡사를 찾은 여러 인사의 문헌에서도 관룡사의 모습 일부는 발견할 수 있다. 곧 《修山集》에는 <遊觀龍寺>의 시 1수와 <秋月軒記>·<古城遊記> 등 記文 2편이 살려 있다.¹⁷⁾ <추월헌기>에는 관룡사 동쪽의 청룡암을 찾은 내용이 담겼고, <고성유기>에는 대가야의 事蹟이 기록되었다. 또한 《巖棲集》에도 관룡사와 관련하여 모두 6수의 시가 실려

17) 《修山集》 권1, 詩, <遊觀龍寺>; 권3, 記, <秋月軒記>; 권3, 記, <古城遊記>.

있고,¹⁸⁾ 《昌舍集》에는 1수의 시만 수록되었다.¹⁹⁾

《수산집》은 李鍾徽의 詩文集으로 1799년(정조 23) 경에 아들 李東稷이 간행하였다.²⁰⁾ 《암서집》은 曹兢燮의 시문집으로, 1935년에 아들 曹廷欽이 《深齋先生文集》으로 간행한 것을 그 뒤에 다시 편집하여 이름을 바꾸어 간행하였다.²¹⁾ 《창사집》은 孫命來의 시문집으로, 1874년(고종 11)에 후손 孫鍾萬과 孫鍾甲이 간행하였다.²²⁾ 이종휘는 1731년(영조 7)~1797년에 활동하였는데, 그가 관룡사를 방문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역사와 지리를 함께 이해하면서 고증하는 경향을 가졌으므로, 古刹로 알려진 관룡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조공섭은 1873년~1933년에 활동하였는데, 鼎山(달성)에 은거하여 학문에 몰두하였으므로, 그 때 관룡사를 방문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손명래는 이들보다 앞선 1664년(현종 5)~1722년(경종 2)에 활동하였지만, 관룡사를 방문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공섭을 제외하고 이종휘와 손명래는 17세기 중반~18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하였기에 당시 중창 불사가 꾸준히 시행되었던 관룡사를 찾았던 셈이다. 자연히 관룡사를 찾은 이들과 관련한 문헌 기록도 17세기~20세기 자료가 대

18) 《巖棲集》 권2, 詩, <觀龍寺以僧來殿上鳴鍾飯客到山中借榻眠 分韻得客字>; 권2, 詩, <宿觀龍寺>; 권3, 詩, <退老諸君見枉 將入觀龍寺 至瑟嶺口占>; 권3, 詩, <觀龍寺用杜韻>; 권3, 詩, <七月二日 遊火旺山 發觀龍寺 過玉泉登山城值雨 仍至大耳山窺窟巖 踰青蓮菴 日晚還寺 用昏朝變氣候 山水含清輝分韻 人賦一體 得變字四言六十二韻>; 권6, 詩, <同諸友遊火王山 由窟巖至觀龍寺>.

19) 《昌舍集》 권1, 詩, <續題觀龍寺>.

20) 金炅希, <修山集 解題> 《修山集》 韓國文集叢刊 247, 民族文化推進會, 2000.

21) 김홍영, <巖棲集 解題 및 書誌> 《巖棲集》 韓國文集叢刊 350, 한국고전번역원, 2013.

22) 李美實, <昌舍集 解題> 《昌舍集》 韓國文集叢刊 續 54, 한국고전번역원, 2013.

부분이다.

관룡사 관련 자료는 문화재 자료와 문헌 자료가 전한다. 문화재 자료는 대체로 8세기 불상 관련 자료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자료가 전하는데 반해, 문헌 자료는 대체로 15세기 전반~20세기 후반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자연히 관룡사의 중창 불사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초창 시기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Ⅲ. 관룡사의 창건과 중창

관룡사의 창건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관룡사 관련 자료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국한하여 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룡사 중창 내역을 통해서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관룡사 중창 시기와 그 내용〉

연도	관련 유적·유물	주관자	내용	전거
1399(정종 1) ~1401(태종 1)	大雄殿		초창	상량문
1507(중종 2)	藥師殿		중창	상량문
1609(광해군 1)	약사전		중창	상량문
1610(광해군 2)	觀音殿	規彥	건립	관룡사사적기
1617~ 1618(광해군 10)	대웅전	靈雲, 性允	중창, 불상 봉안, 단청	관룡사사적기, 상량문
1619(광해군 11)	香積殿	영운	건립	관룡사사적기
1622(광해군 14)	金堂	영운	건립	관룡사사적기
1634(인조 12)	圓音閣	성운	건립	관룡사사적기
	極樂殿	성운	건립	관룡사사적기
1636(인조 14)	上室	영운	건립	관룡사사적기

1637(인조 15)	滿月堂	영운	건립	관룡사사적기
1644(인조 22)	僧堂	德峯	건립	관룡사사적기
1646(인조 24)	含月堂	덕잠	건립	관룡사사적기
1652(효종 3)	冥府殿		건립	상량문
	七星閣		건립	상량문
1662(현종 3)	黑龍菴	普天	창건	관룡사사적기
1666(현종 7)	浩然堂	靈輝	건립	관룡사사적기
1677(숙종 3)	文殊殿		흑룡암 移轉 건립	관룡사사적기
	淸風堂	文覺	靈隱庵 이전 건립	관룡사사적기
1682(숙종 8)	명부전		중창	상량문
	칠성각		중창	상량문
1712(숙종 38)	대웅전	弘淳	중창	관룡사사적기
	함월당	홍순	중창	관룡사사적기
	天王門	홍순	건립	관룡사사적기
	返淵寮	홍순	明鏡堂 이전 건립	관룡사사적기
	安壤寮	홍순	향적전 이전 건립	관룡사사적기
1713(숙종 39)	四天王像	홍순	조성	관룡사사적기
	약사전	홍순	단청	관룡사사적기
	16羅漢	홍순	중수	관룡사사적기
1718(숙종 44)	禪堂	홍순	중창	관룡사사적기
1726(영조 2)	彌陀殿	允言, 致學, 漢晶	청풍당 터에 건립	관룡사사적기
1729(영조 5)	霽月白堂	祖安	만월당을 개명, 중수	관룡사사적기
	靈山殿	조안	건립	관룡사사적기
	香爐殿	조안	건립	관룡사사적기
	紙舍		관음전 터에 건립	관룡사사적기
1749(영조 25)	대웅전		중창	상량문
1753(영조 29)	명부전		중창	상량문
	칠성각		중창	상량문
1763(영조 39)	원음각		중창	상량문
1821(순조 21)	약사전		중창	상량문

관룡사의 불사는 대체로 <관룡사사적기>에서 확인된다. 다만 대웅전, 약사전, 명부전, 칠성각 등은 상량문이 따로 전한다.

대웅전에서는 1965년에 보수 공사 중에 1749년에 작성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그것에는 1399년에 시작하여 1401년 3월에 초창 완공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7년 봄에 중창을 시작하여 다음해 봄 22일에 완공하였으며, 1749년 정월 초10일에 다시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었다.²³⁾ 그런데 이러한 내용 외에도 1704년(숙종 30) 7월에 홍수로 무너진 것을 1712년에 다시 중창하였다는 기록도 따로 전한다.²⁴⁾ 대웅전은 1401년에 초창된 이래, 1617년, 1712년, 1749년 등 세 차례 중창된 셈이다.

약사전에서도 1961년에 해체 수리하면서 1821년에 작성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상량문에는 353년에 처음 건립된 뒤, 1507년과 1609년에 중창되었고, 1821년에도 중창되었다고 기록되었다.²⁵⁾

23) 金周泰, <觀龍寺大雄殿上樑文> 《考古美術》 6권 10·11호, 1965, 141~142쪽에 “前二重創上樑記改書 萬曆四十五年丁巳春爲始 戊午春二十二日法堂上樑記文 又挖壬辰之兵燹後 … 上樑記 自大明建文元年己卯 在位四年辛巳三月日初創…壬辰倭變兵燹後二十五年丁巳改創 … 初二創年數合計三百四十八年 乾隆十四年己巳正月初十日三重創具年畢功 … 乾隆十四年己巳一月二十四日□時上樑記 謹封”이라고 하였다. 이 상량문은 ‘前二重創上樑記改書’라고 하여 앞선 두 번째 중창 때 작성된 상량기를 改書한 것이다. 또한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는 “萬曆丁巳 靈雲因起大雄殿 性允奏丹采造佛像具位而奉焉”이라고 하였다.

24)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肅宗甲申秋七月 大雷雨川翻洞裂…金堂浮屠覆於水 居僧之溺死者二十二 … 越九年壬辰 上人學齡住持本寺設維那以殖貨 使弘淳視事 遂起大雄殿”이라고 하였다.

25) <考古美術뉴—스> 《考古美術》 2권 5호, 1961, 111~112쪽에 “聖上卽位二十一年辛巳五月日 昌寧觀龍寺藥師殿上樑文 … 其中藥師聖一法堂 最初先架萬劫古殿 殿有四劫<初曰東晉穆帝永和九年癸丑 二曰大明正德二年丁卯 三曰萬曆三十七年己酉 今日道光元年辛巳”라고 하였다.

원음각은 1634년에 극락전과 함께 건립된 뒤 1763년에도 중창되었고, 1830년(순조 30)에는 중수되었다.²⁶⁾ 명부전과 칠성각에서도 1912년 이후에 작성된 상량문이 확인되었는데, 1652년에 건립된 뒤, 1682년, 1753년에도 중창되었다고 쓰였다.²⁷⁾

관룡사의 불사는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곧 1609년의 약사전 중창을 계기로 이전부터 자리하였던 대웅전이 중창되었고, 관음전, 향적전, 금당, 원음각, 극락전, 상실, 만월당, 승당, 함월당, 명부전, 칠성각, 호연당 등의 여러 전각도 1666년까지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 아울러 1629년~1630년에는 대웅전에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가 제작되어 봉안되었고, 1652년에는 명부전을 건립하면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을 조성하여 안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사는 規彥을 포함한 몇 명의 승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²⁸⁾ 불사는 1609년~1622년, 1634년~1637년, 1644년~1652년, 1662년~1666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관룡사 주변에는 여러 암자도 점차 자리를 잡았는데,²⁹⁾ 1677년과 1682년은 명부전, 칠성각 등을 중창하면서, 이전부터 주변에 자리한 암자를 경내로 옮겨 건립하는 불사가 선행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불사로 많은 전각이 자리하면서, 관

26)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崇禎甲戌 有圓音閣又有極樂殿 性允之爲也”라고 하였다. 또한 文化財廳, 앞의 책, 194쪽 참조.

27) 文化財廳, 위의 책, 196쪽에 “順治九年癸巳正月始發 康熙二十一年壬戌年重創 乾隆拾捌年癸酉年參重創 明治四十五年壬子正月二十八日四重創”이라고 하였다.

28)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寇退後 黍民作集 萬曆庚戌 有過去比丘若干人 風來葉定披荊 而掃遺墟築禪堂數楹”이라고 하였다.

29)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肅廟丁巳 … 其外諸天雨花之勝 有曰靑龍菴黃龍菴東菴極樂菴”이라고 하였다. 동암과 청룡암은 같은 곳인 듯하다(李鍾徽, <秋月軒記> <<修山集>> 권3, 記, “昌山治北 有觀龍寺 前秋余往遊焉 寺之東菴曰靑龍”).

룡사는 점차 大刹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지만 1704년 7월에 관룡사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개울이 넘치고 계곡이 무너지면서 승려 22명이 목숨을 잃고 관룡사의 전각은 대부분 훼손되었다. 자연히 이후의 불사는 관룡사의 면모를 다시 일으키는 불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곧 1712년부터 대웅전, 함월당 등 이전에 자리하였던 전각을 새로 건립하였고, 나아가 천왕문과 사천왕상, 영산전, 향로전 등을 새로 건립하거나 청풍당 터와 관음전 터에 미타전과 지사를 새로 세웠다. 또한 약사전과 16나한을 수리하면서, 명경당과 향적전을 옮겨 반연료와 안양료 등의 요사로 사용하고, 선당을 중창하거나 만월당을 제월자당으로 개명하여 수리하였다.³⁰⁾ 1712년~1729년의 불사는 이전의 주요 전각을 중창하거나 새로운 전각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수리하며 유지하는 불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불사에도 불구하고 관룡사 전각의 수나 규모는 수재 이전보다는 준 상태였다. 이후 1749년부터는 기존 전각을 중창하면서 예전에 자리하였던 전각을 새로 건립하는 불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733년에 <관룡사사적기>가 찬술되었고, 1749년 이후에는 대웅전의 안과 밖에 각각 관음보살 벽화와 花卉圖·花鳥圖 등이 조성하기도 하였다.

관룡사는 임진왜란 이후 많은 전각을 건립하면서 대찰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숙종 때 홍수로 인해 폐허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뒤에는 대체로 주요 전각만을 중창하면서 오늘에 이른 셈이다. 다만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웅전과 약사전이 중창되었는데, 특히 대웅전은 1399년~1401년에 초창되었으므로, 관룡사는 고려시대에도 법등을 유지하

30) 다만 이전부터 자리하였던 향적전과 만월당이 1704년에 발생한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곧 향적전과 만월당을 새로 건립한 뒤에 옮겼는지, 훼손되지 않았기에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

였을 듯하다.

관룡사는 ‘신라’ 8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다. 다만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주변에 분포한 부도에서도 고려시대 양식이 확인되므로, 관룡사는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래 꾸준히 사세를 유지하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룡사의 창건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래의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 ① 창녕현 동쪽에 火王山이 있는데, 높고 크며 나무가 많아 뛰어나다. 그 이름인 火王은 오래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신라 경덕왕이 邑號를 火王郡으로 하사하였을 때 읍의 鎭山이 되었기에 이 이름을 얻었다. 산 동쪽의 새처럼 생긴 곳에 절이 있는데 觀龍寺라고 부른다. 俗傳에는 산 정상에 연못 세 곳이 있었는데, 용이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절이 창건될 때 갑자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고 한다. 절은 觀龍으로 志異를 이름 붙였다.³¹⁾
- ② 火王山古城<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5,983척이며, 지금은 없어졌다. 그 안에 샘이 아홉 곳이 있었고 연못은 세 곳 있었다>.³²⁾
- ③ 현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火旺’이라고 불린다. 산의 양지 바른 기슭에는 절이 있는데 ‘관룡’이라고 부른다. 신라에서 창건되고 확장된 천년의 고찰이다. ... 그 중에 藥師 聖人을 모신 한 법당이 있는데, 최초로 먼저 건립된 萬劫의 옛 건물로, 네 번이나 건립되었다<첫 번째는 東晉 穆帝 永和 9년 계축년이다...>.³³⁾

31)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昌寧縣東有火王山 高大森秀 是其名 火王者古 而不知其義 新羅景德王錫邑號火王郡 而是爲邑之鎭山 故得斯名 ... 山之東畏佳之區 有刹曰觀龍寺 俗傳 火王之頂有三池 龍伏其中 寺之朞也 值龍乘雲上天 衆目欣瞻 寺之觀龍名志異也”라고 하였다.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7, 昌寧縣 古跡조에 “火王山古城<石築周五千九百八十三尺 今廢 中有泉九池三>”이라고 하였다.

33) <考古美術—스>, 앞의 책, 111쪽에 “縣之東隅有山曰火旺 山之陽麓有寺曰觀龍 朞拓新羅 千年古寺 ... 其中藥師聖一法堂 最初先架萬劫古殿 殿有四朞<初曰東晉穆帝永和九年癸丑 ...>”이라고 하였다.

- ④ 신라 탈해왕 40년 기유에 처음 창건되었고, 조선 광해군 9년 정사에 靈雲 장로가 다시 세웠다.³⁴⁾

창녕 동쪽의 화왕산은 신라 경덕왕 때 지금의 창녕군 일대가 화왕군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전의 알리지지 않은 이름에서 ‘화왕산’이라고 불렸다. 화왕군의 진산인 화왕산에는 둘레가 5,983척이나 되는 옛 성이 있었는데, 이미 없어진 화왕산고성 안에는 아홉 곳의 샘과 연못 세 곳이 자리하였다. 화왕산고성 주변인 산 동쪽에는 관룡사에 자리하였는데, 전승에 의하면, 산 정상에 연못 세 곳에서 용이 절의 창건에 맞추어 갑자기 하늘로 올라 갔고, 그것을 쳐다 본 사람들에 의해서 ‘관룡사’라고 불렸다.

관룡사는 동진 목제 영화 9년이나 신라 탈해왕 40년 기유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탈해왕은 24년 동안 재위하였는데, 재위 기간 동안에 기유년은 없다. 오히려 흘해왕 40년이 기유년이므로, 탈해왕 40년 설은 흘해왕 40년의 誤記일 수 있다. 그러나 흘해왕 40년(349)에 신라는 관룡사가 위치한 창녕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신라가 창녕 일대를 지배하였던 것은 진흥왕 때 전후이기 때문이다. 목제 영화 9년 창건설은 영화 5년(349)의 잘못인데,³⁵⁾ 영화 5년은 곧 흘해왕 40년이므로, 영화 5년설 역시 흘해왕 40년설과 긴밀히 관련되었기에 믿기 어렵다.

한편 관룡사가 신라 진평왕 5년(583)에 창건되었다는 설도 전한다.

34)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卷上, 觀龍寺條에 “新羅脫解王四十年己酉初朔 朝鮮光海君九年丁巳 靈雲長老再朔”이라고 하였다.

35)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獨一藥師殿無羌...迺於樑頭疊木交架處 得永和五年己酉題字 本蒼而古墨蹟著木面不磨 其斯爲東晉穆帝年號 據九年癸丑王右軍蘭亭修稷前 五年己酉說此殿 至今千有二百餘年云 自是寺之名以古特聞 聞風而往者日益”이라고 하였다.

證法이 이 때 중창하였다는 것을 창건으로 이해한 것인데, 삼국통일 뒤에는 元曉가 머물며 승려 천 명에게 《華嚴經》을 講經하였고, 748년(경덕왕 7)에 秋潭이 중창하였다는 내용이다.³⁶⁾ 이와 관련하여 원효가 제자 松坡와 함께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롱한 五色彩雲이 뻗치고 아홉 마리의 용이 화왕산 마루의 月影三池로부터 등천하는 것이 보이므로 절 이름을 관룡사라고 하고,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 했다는 전설도 전한다.³⁷⁾ 이 전승은 화왕산 정상의 연못 세 곳에서 승천한 용을 관룡사 창건과 연결한 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증법이나 추담의 행적, 원효의 관룡사 주석 사실 등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못과 관련된 관룡사 관련 전승을 담고 있으므로, 관룡사는 적어도 500년대 후반에는 창건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진흥왕 때 창녕에 하주를 설치하고 순수비를 세워 신라의 지배를 강화하였으므로, 관룡사의 창건은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³⁸⁾

진평왕 때 이래로 현재의 관룡사 자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찰이 자리하였다. 그 뒤 이 사찰은 원효와 관련하여 ‘관룡사’라고 불렸고, 성덕왕 때에는 용선대에 조성·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을 찾는 순례자나 기도자들이 머무는 사찰로 기능하였다가,³⁹⁾ 경덕왕 때 다시 중

36) 《昌寧郡誌》；李政 編著, 《韓國佛教寺刹事典》, 불교시대사, 1996, 53~54쪽. 다만 이 설화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37) 李政 編著, 위의 책, 54쪽.

38) 李鍾徽, <古城遊記> 《修山集》 권3, 記에는 “火王山 在昌山縣治北 與靈鷲山相連 上有古城 中有三池 … 城下爲觀龍寺 寺新羅眞興王時所建”이라고 하여, 화왕산의 고성과 연못 세 곳을 언급하면서, 진흥왕 때에 관룡사가 창건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李鍾徽, <遊觀龍寺 追記> 《修山集》 권1, 詩에서도 “往昔新羅世 眞興耽佛法 黃龍見道場 殿宇開千臘 龍去古寺在”라고 하여, 관룡사가 진흥왕 이후에 용이 사라진 곳에 세워진 古刹이라고 하였다.

39) 張日圭, 앞의 논문, 62쪽 각주24.

창되었을 듯하다. 그 뒤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 때에도 여러 불사는 계속 설행되어 몇몇 승려가 미륵불상을 조성하기도 하였다.⁴⁰⁾ 다만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은 그것이 안치된 대좌를 조성한 시기와 달리 9세기 전반과 고려시대에 조성되었고, 각각 용선대와 약사전에 봉안되었다. 고려시대에는 3층 석탑이 조성되었으므로, 약사전의 건립은 대체로 고려시대에 이루어졌을 듯하다. 또한 대웅전 등의 主殿閣도 고려시대에 중창되면서, 승려들의 香華도 꾸준히 이어져 관룡사 주변에는 여러 기의 부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관룡사의 法燈은 신라 이래 고려를 거쳐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전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IV. 관룡사의 寺格

관룡사는 6세기 이래 화왕산을 주산으로 한 창녕 일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꾸준히 법등을 이었다. 창녕은 가야 연맹에 속한 非火伽倻의 중심지로, 이곳은 낙동강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신라에게 교두보와 같았다. 555년(진흥왕 16) 이전에 比自火郡으로 편제된 창녕에 진흥왕은 555년에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下州를 설치하였고, 하주의 치소는 이후 565년(진흥왕 26)에는 大耶(합천)으로 이전되었다.⁴¹⁾ 창녕은 沙伐州와 함께 진흥왕 전후에 신라가 낙동강 중류 지역 일대로 진출

40) 張日圭, 위의 논문, 62~63쪽.

41) 《三國史記》 권34, 雜誌3, 地理志에 “火王郡 本比自火郡<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州 名下州 二十六年 州廢 景德王改名 今昌寧郡”이라고 하였고,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진흥왕 16년조에는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이라고 하였으며,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진흥왕 26년조에 “九月 廢完山州 置大耶州”라고 하였다.

하는 중요한 전략요충지였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창녕의 불교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⁴²⁾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확인하기로 하자.

元和 5년 경인년 6월 3일에 順表□塔과 金堂이 수리되어 이룬 글을 기록한다. 신해년에 인양사 종이 완성되었다. 신유년에 여섯 절에서 安居할 때 먹은 것이 606석이었다. 임술년에 인양사의 取妙戶의 頂禮石이 완성되었다. 같은 절의 金堂이 수리되었다. 같은 해에 羊熱과 榆川 두 驛에 곡식 102석을 주었다. 을축년에 인양사의 无上舍가 완성되었다. 임오년에 왕경의 奉德寺, 永興寺, 天巖寺, 寶藏寺 등에 곡식 2,713석을 주었다. 임오년에 인양사의 三寶에 954석을 넣었다. 같은 해에 탑의 露盤이 수리되었다. 계미년에 인양사 금당 안의 상이 완성되었다. 같은 해에 苑池寺 금당 안의 상이 완성되었다. 계미년에 인양사의 탑 4층이 수리되었다. 같은 해에 인양사 佛門 네 모서리의 풍경이 완성되었다. 을유년에 인양사 금당, 門居堂의 지붕을 이었다. 정해년에 須彌壇이 완성되었다. 기축년에 常樂寺의 无尺倉이 완성되었다. 경인년에 같은 절의 无□倉이 완성되었다. 같은 해에 大谷寺의 석탑이 완성되었다. 기축년에 인양사 赤戶의 계단이 완성되었다. 절의 돌계단과 정례석 둘이 완성되었다. □鶴足石이 완성되었다. 경인년에 龍頭가 완성되었다. 신해년에 시작하여 경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모두 곡식 15,595석이 사용되었다.⁴³⁾

42) 이상 지리적 조건에 대한 설명은 張日圭, 앞의 논문, 63~65쪽 참고.

43) “元和五年庚寅六月三日順表□塔金堂治成文記之 辛亥年仁陽寺鐘成 辛酉年六寺安居食六百六石 壬戌年仁陽寺取妙戶頂禮石成 同寺金堂治 同年羊熱榆川二驛施食百二石 乙丑年仁陽无上舍成 壬午年京奉德寺永興寺天巖寺寶藏寺施食二千七百十三石 壬午年仁陽寺三寶中入食九百五十四石 同年塔盧半治 癸未仁陽寺金堂內像成 同年苑池寺金堂內像成 癸未年仁陽寺塔第四層治 同年仁陽寺佛門四角鐸成 乙酉年仁陽寺金堂盖門居堂盖 丁亥年須彌成 己丑年常樂寺无尺倉成 庚寅年同寺无□倉成 同年大谷寺石塔成 己丑年仁陽寺赤戶階成 寺戶石梯頂禮二石成 □鶴足石成 庚寅年龍頭成 辛亥年初庚寅年至間□合用食一萬五千五百九十五石”이라고 했다. 명문은 崔鉛植, <仁陽寺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권3, 1992, 234~240쪽;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

810년(헌덕왕 2)에 仁陽寺에서는 順表가 여러 탑과 금당을 수리하고 이룬 내용을 석비에 새겨 기록하였다. 비문은 뒷면에 조각된 僧像의 개인적 공적을 기록한 것인데, 승상으로 조각된 이는 순표라는 승려였다.⁴⁴⁾ 그는 화왕군의 부호 출신으로 승려가 되고서소 자신의 재산을 바탕으로 삼아 인양사를 중심으로 인근 사원의 불사를 적극 지원하였다가 810년에 입적하였다.⁴⁵⁾

순표가 지원한 여러 불사는 771년부터 810년까지 설행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양사 주관 불사와 그 내용>

연도	관련 사찰	내 용
771(혜공왕 7)	인양사	종 완성
781(선덕왕 2)	여섯 절	안거할 때 곡식 606석 소비
782(선덕왕 3)	인양사	취묘호의 정례석 완성, 금당 수리 양열역과 유천역에 곡식 102석 시납
785(원성왕 1)	인양사	무상사 완성
802(애장왕 3)	인양사	삼보에 954석 시납, 탑 노반 수리 왕경의 봉덕사, 영흥사, 천엄사, 보장사 등에 곡식 2,713석 시납
803(애장왕 4)	인양사	금당의 상 완성, 탑 4층 수리, 불문에 풍경 완성
	원지사	금당의 상 완성
805(애장왕 6)	인양사	금당과 문거당 지붕 수리
807(애장왕 8)	인양사	수미단 완성
809(헌덕왕 1)	상락사	무척창 완성
	인양사	적호 계단 완성, 절문 돌계단과 정례석 완성, □계족석 완성
810(헌덕왕 2)	상락사	무□창 완성
	대곡사	석탑 완성
	인양사	용두 완성

회의 단면> 《韓國史研究》 95, 1996, 25~33쪽 참고.

44) 박홍국, <昌寧 仁陽寺碑文의 塔 關聯記事에 대한 檢討> 《新羅文化》 32, 2008, 230~232쪽.

45) 하일식, 앞의 논문, 1996, 48~53쪽.

인양사가 주관한 불사는 주로 인양사에 종, 건물, (불보살)상, 불단, 예불 관련 장식, 지붕 장식 등을 완성하거나 건물, 탑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인양사의 순표는 원지사, 상락사, 대곡사, 그리고 절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섯 절 등에 (불보살)상, 건물, 석탑 등을 건립하는 불사나 안거 등의 행사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불사는 771년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781년~785년, 802년~810년에 집중적으로 설행되었다. 771년 불사와 781년~785년의 불사는 주로 인양사에 집중된 반면, 802년~810년의 불사는 781년 안거할 때 여섯 절에 곡식을 나누어 준 것처럼, 원지사, 상락사, 대곡사 등 여러 절에서도 진행되었다. 또한 771년 불사와 781년~785년의 불사는 종과 예불 관련 장식 제작, 건물 건립·수리로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802년~810년의 불사는 건물, (불보살)상, 불단, 지붕 장식, 예불 관련 장식 등의 건립과 함께 건물, 탑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주변 6곳의 절이나 양열역·유천역에 각각 606석, 102석의 곡식을 시납하던 것도 점차 왕경에 위치한 봉덕사, 영흥사, 천엄사, 보장사 등에 2,713석을 보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인양사 삼보에 954석을 시납하기도 하였다. 인양사를 중심으로 한 불사와 시납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범위와 내용이 점차 확장되었다. 여러 불사에 소요된 비용과 시납한 곡식의 양은 15,595석 정도였다. 순표는 40년 가량 불사를 이어가면서 매년 400석 정도의 재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보시한 양으로는 제법 많은 편이었다.⁴⁶⁾ 화왕산을 바라보는 서쪽에는 술정리 동·서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동3층 석탑은 불국사 3층 석탑으로 대표되는 신라 석탑이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건립된 대표적

46) 순표가 매년 지원한 400석은 국왕이 하사하거나 보시한 300~500석과는 비슷하지만, 복전 1인이 보시한 양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편이다(張日圭, 앞의 논문, 66쪽 각주 28 참고).

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⁴⁷⁾ 인양사가 주변 사찰은 물론 왕경의 여러 사찰에까지 꾸준히 시주를 한 것은, 술정리 동3층 석탑의 건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경주의 불교 문화와 창녕의 불교 문화가 긴밀히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곧 창녕은 낙동강 유역의 대표적인 전략요충지였으므로, 인양사로 대표되는 창녕 일대의 사찰도 왕경의 사찰이나 중앙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⁴⁸⁾

관룡사 약사전에 봉안된 미륵불상의 772년 조성 불사나 8세기 전반~9세기에 설행된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조성 불사는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곧 당시 관룡사와 인양사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왕경의 불교계 내지 사찰과 밀접히 관계한 인양사로 대표되는 창녕 일대 불교계의 동향은 아마도 관룡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시 관룡사는 창녕 일대의 유력 세력은 물론 신라 중앙 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법하다.

한편 원효가 ‘관룡사’라는 절 이름을 지었고, 그는 원효는 이곳에 머물면서 1천명의 승려와 함께 《화엄경》을 강경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원효의 행적 가운데 관룡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화엄경》 강경은 관련이 있을 듯하다. 곧 창녕에서 낙동강을 건너고령에는 미승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盤龍寺가 해인사보다 먼저 창건되었다. 관룡사의 창건에는 海印寺 창건에 관여한 애장왕이 관여하였다. 802년 해인사의 창건은 애장왕의 할머니인 聖穆王太后的 귀의와 창건주 順應과 利貞이 애장왕 왕비의 등창을 고쳐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⁴⁹⁾ 자연히 관룡사는 802년이나 그 이전에 건립되

4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창녕술정리사지》, 2011.

48) 張日圭, 앞의 논문, 67쪽.

49) 崔致遠, <新羅伽椰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東文選》 권64에 “越貞元十八年良月既望 牽率同志 卜築於斯 山靈鈞妙德之名 地體印清涼之勢 分裝五髻 競拔一毛 于時聖穆王太后 母儀四夷 子育三學 聞風敬悅 誓日歸

었고, 당시 창녕의 인양사는 왕경의 사찰이나 중앙 정부와 관련을 맺었으므로, 모르긴 해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자리하였던 창녕의 관룡사도 애장왕의 고령 반룡사나 합천 해인사 창건 과정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해인사는 창건 이후 신라 화엄종의 종찰로 자리하였다. 그런데 고령·합천 등 창녕 주변 지역의 화엄 불교는 화왕산의 여러 산줄기와의 관련이 맺었다. 화왕산의 북쪽 산줄기는 비슬산에 이르는데, 이 산은 신라 때 觀機와 道成이 머물렀던 곳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10리 정도 떨어져 수행하다가 어느 날 온 몸이 공중으로 솟아 사람들이 간 곳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⁵⁰⁾ 또한 신라 말에 전국적으로 해인사 등을 포함한 ‘화엄십산’이 분포하였는데, 이 산에는 그 가운데 한 곳인 玉泉寺가 자리하였다.⁵¹⁾ 다만 화왕산 남쪽 영취산의 동쪽에도 또 다른 옥천사가 자리하였다. 이 절은 고려 공민왕 때에 활동하였던 辛旽의 母가 머물렀던 곳이었다.⁵²⁾ 신돈은 화엄불교를 강조하였던 승려인데, 흥해 출신으로 고령 반룡사에 출가한 천희는 신돈과 친밀하였

依捨以嘉蔬 副之束帛 是乃自天獲祐 實惟得地成因 然屬生徒方霧擁岳扉 耆德遽露晞林宇 利貞禪伯 踵武興功”이라고 하였다. <伽椰山海印寺古籍> 《增補校正朝鮮寺刹史料》 上, 494~495쪽에 “時新羅第三十九王哀莊大王王后患發背 良醫無效 ... 見二師入定 ... 師授以五色線 曰宮前有何物 答曰有梨樹 師曰持此線一頭繫於梨樹 一頭接於瘡口 卽無患 ... 時哀莊三年壬午 卽唐貞元十八年也 大王親行於茲寺”라고 하였다.

50) 《三國遺事》 권5, 避隱8, 包山二聖조.

51) 崔致遠,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崔文昌侯全集》, 275쪽에 “海東華嚴大學之所 有十山焉 中岳公山美理寺 南岳智異山華嚴寺 北岳浮石寺 康州迦耶山海印寺 普光寺 熊州迦耶峽普願寺 鷄龍山岫寺 括地志所云 鷄藍山是 朔州華山寺 良州金井山梵語寺 琵琶山玉泉寺 全州母山國神寺 更有如漢州負兒山青潭寺也 此十餘所”라고 하였다.

5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中卷, 1977, 500쪽 玉泉寺址.

고, 그를 이어 국사로 봉해지기도 하였다.⁵³⁾ 관룡사는 고령이나 합천 등지에 자리한 여러 화엄 사찰과 긴밀히 관련을 맺었던 셈이다. 고려 시대 관룡사의 연혁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관룡사는 창건 이래 신라 중앙 정부의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특히 주변에 자리한 화엄사찰의 영향 속에서 법등을 이었을 법하다.⁵⁴⁾

자연히 《화엄경》 강경과 관련한 관룡사의 원효 전승은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곧 <初發心自警文>은 원효의 <發心修行章>과 지눌의 <誠初心學人文>에 나옹의 侍者였던 野雲의 <自警文>을 묶은 책이다. 이 책은 1397년에 흥천사 尙聰禪師가 태조 이성계의 뜻에 따라 전국 사원의 淸規法으로 시행한 이래 僧家の 沙彌科 기본 교재로 이용되었다.⁵⁵⁾ 주로 筆寫하여 사용하였기에, 開板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현재 古刊本으로는 1233년에 간행된 海印寺本, 1570년에 간행된 無爲寺本, 1572년 歸眞寺本, 1574년의 구월산 月精寺本, 1579년의 神興寺本, 1634년의 龍腹寺本, 1635년의 운주산 龍藏寺本 등이 전한다. 특히 간행 연대를 알 수 없지만 화왕산 觀龍寺本도 전하고 있다.⁵⁶⁾ 이 책은 원효가 불을 흠쳐 쫓던 退物 神仙을 교화하여 上座로 삼고 야운이라는 범명을 주었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다.⁵⁷⁾ 원효의 저술이나 전승을 포함한 이 책이 사미과 기본 교재로

53) 李穡, <彰聖寺 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篇, 1236 쪽에 “師諱千熙 號雪山 興海人 ... 師年十三投華嚴盤龍社主非大師”라고 하였다.

54) 관룡사와 관련된 창녕과 고령, 합천 불교계의 동향은 張日圭, 앞의 논문, 67~71쪽 참고.

55) 정우영, <《初發心自警文諺解》 연구- 송광사판과 서봉사판의 판본 비교를 중심으로> 《東岳語文學》 51, 2008, 177쪽.

56)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普蓮閣, 1973; 임기중, <초발심자경문과 불교가사> 《조선종교문학집성》 불교편, 2004, 207쪽.

57) 金煥泰, <三師 合輯 初發心自警> 《韓國佛教古典名著의 世界》, 民族

관룡사에서 간행되었으므로, 조선시대에도 관룡사에는 원효의 전승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고, 관룡사는 여전히 창녕 일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1401년과 1507년에 끝난 대웅전 초창과 약사전 중창 불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관룡사의 여러 불사를 주관하였던 규언, 영운, 성윤, 덕잠, 보천, 영휘, 문각, 홍순, 윤언, 치학, 한정, 조안 등 여러 승려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⁵⁸⁾ 자연히 관룡사에 주석한 승려를 통해서 그 사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임진왜란 이후와 1704년의 대홍수 이후에 관룡사에서는 여러 차례 불사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여러 전각을 복원하는 과정에는 벽화의 제작도 함께 진행되었다. 곧 대웅전에는 主佛의 뒷벽 뒷면에 1749년에 대웅전 중창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는 바위 위에 앉은 관음보살이 演戲座의 자세로 앞면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살의 아래쪽 오른쪽에는 합장을 한 善財童子가 있고 바위 끝에는 정병이 놓여 있다. 이러한 구도는 조선 전기 이래 전통적으로 조성되었던 水月觀音圖像을 보여주는 것으로, 畫師는 알 수 없지만 18세기 전반~중반에 경상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義謙이 조성한 수월관음도의 특징을 공유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주불의 뒷벽 뒷면에 白衣를 입은 관음보살도만이 아니라 수월관음도도 조성된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⁵⁹⁾

또한 약사전에는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花卉圖와 花鳥

社, 1994, 270~271쪽.

58) 致學은 1737년(영조 13)에 太顛 등과 함께 봉영사를 중창하였다(권상로, 《한국사찰전서》 권상, 奉永寺조). 다만 그가 관룡사 미타전을 건립한 치학과 동일인인지 알 수 없고,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그 행적은 더 이상 알 수 없다.

59) 유경희, 앞의 논문, 214~215, 220쪽.

圖가 건물 안팎에 그려져 있다. 곧 건물 안의 정면 벽 중앙에는 梅花圖 4점, 동쪽 벽에는 梅鳥圖·蘭鳥圖·花蝶圖·竹鳥圖, 서쪽 벽에는 화점도·蓮鳥圖·葡萄圖·화점도 등이 병풍처럼 그려져 있다. 건물 밖의 벽에는 매화도·菊圖·牡丹怪石圖가 剝落이 심한 채 남아 있다. 이 그림은 19세기 사찰에 제작된 일반 회화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당시 민화를 그렸던 지방 화가들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⁶⁰⁾

관룡사는 임진왜란과 홍수로 두 차례 폐허화하였지만, 벽화를 조성하면서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한 승려에 의해서 조선 전기 이래의 전통을 이었다. 자연히 관룡사는 경상도 일대의 주요 사찰로 자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인양사를 중심으로 한 창녕 일대 불교계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과 함께 창녕 일대 유력 세력의 도움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특히 1733년에 명학이 학령 장로의 말을 듣고 신유한에게 사적기의 찬술을 부탁한 것은⁶¹⁾ 밀양과 고령에 영향을 미쳤던 그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담겼다. 자연히 대한제국기 전후에도 관룡사는 조공섭 등 영남의 유력 문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찰로 자리하였다.

V. 맺는말

창녕은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에서 주목된 곳이었다. 자연히 창녕에는 신라의 왕실이나 왕경 사찰과 관련된 흔적이 분포할 수 있다. 창녕에는 현재까지 전하는 불교 문화재가 제법 많은데, 그 가운데 관

60) 崔卿賢, 앞의 논문, 147쪽 <표 1>, 148~150쪽.

61)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에 “是年春正月 余自東郡告歸伽倻田圃 山人明學踵余門 道本寺如畫 且以院中齡長老語巧 余文甚力 … 青泉申維翰周伯書於梧月樓”라고 하였다.

룡사에 여러 불교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다. 관룡사의 문화재는 창녕 불교계의 동향과 함께 관룡사의 사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살피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관룡사 관련 자료는 문화재 자료와 문헌 자료 등이 전한다. 용선대나 약사전 안에 봉안된 불상은 대좌의 명문으로 보아, 대체로 8세기에 조성되었던 반면 현재의 약사전, 대웅전, 원음각 등 건물은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에 건립되었다. 대웅전이나 명부전에 봉안된 불보살상이나 벽화 등은 이보다 앞선 17세기 전반~18세기 중반에 주로 제작되었다. 관룡사의 문화재 자료는 대체로 8세기 자료와 17세기 전반~19세기 전반 자료가 남아 있는 셈이다. 문헌 기록은 주로 <관룡사사적기>과 상량문이 있는데, <관룡사사적기>가 17세기~18세기 관룡사의 연혁을 전하는 반면에 상량문은 15세기 전반~19세기 전반 관룡사의 상황을 담았다. 이밖에 관룡사를 찾은 여러 인사의 문집에서도 17세기~20세기 당시 관룡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관룡사 관련 자료가 제법 전하지만, 관룡사의 창건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전하는 전승에서는 진평왕 때 이래로 지금의 관룡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찰이 자리하였다가 원효와 관련하여 ‘관룡사’라고 불렸음이 확인된다. 그 뒤 관룡사는 성덕왕 때에 용선대에 조성·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을 찾는 순례자나 기도자들이 머무는 사찰로 기능하였다가 경덕왕 때 다시 중창되었고, 혜공왕 때에도 여러 불사는 계속 설행되었다.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은 그것이 안치된 대좌를 조성한 시기와 달리 9세기 전반과 고려시대에 조성되어 각각 용선대와 약사전에 봉안되었다. 약사전 앞의 3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었으므로, 약사전의 건립이나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의 봉안도 고려시대에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대웅전 등의 주요 전각도 중창되

었고, 관룡사 주변에는 여러 기의 부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관룡사의 법등은 6세기 이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이전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분명한 시기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등이 원래의 자리에서 옮겨 봉안되는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관룡사는 약사전만을 남기고 모두 불탔다. 복원 불사는 대체로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설행되었는데, 특히 이전에 자리하였던 대웅전과 약사전을 중창하면서 여러 새로운 전각을 집중 건립하였고, 불상과 보살상 등을 제작·봉안하였으며, 관룡사 주변에 흩어진 암자를 경내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룡사는 점차 大刹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지만 1704년(숙종 30) 7월에 관룡사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건물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이후에도 복원 불사는 설행되었는데, 이전에 자리하였던 전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옛 건물터에 새 건물을 짓거나 이전 건물을 옮겨 짓곤 하였다. 자연히 관룡사 전각의 수나 규모는 이전보다 줄었다. 때문에 1749년(영조 25)부터 기존 전각을 중창하면서 예전에 자리하였던 전각을 새로 건립하는 불사가 계속 설행되었다. <관룡사사적기>는 이 과정을 담아 1733년에 찬술되었다. 관룡사는 임진왜란 이후 많은 전각을 건립하면서 대찰로 성장하였지만, 숙종 때 홍수로 인해 폐허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뒤에는 대체로 주요 전각만을 중창하면서 오늘에 이른 셈이다.

창녕은 신라의 주요 전략요충지였다. 순표가 주관한 인양사 불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녕 일대의 사찰은 창녕 일대의 유력 세력은 물론 신라 조정이나 왕경의 사찰과 긴밀히 관계하였다. 특히 원효가 《화엄경》을 강경하였다는 전승이 전해질 정도로, 창녕 주변에 분포한 반룡사, 옥천사 등의 화엄 사찰의 영향도 제법 미쳤는데, 그 영향력은 고려 말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관룡사의 원효 전승은 이어졌다. 특히 원효의 저작이 포함된 <초발심자경문>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관룡사에서 간행되었다. 관룡사의 사격은 조선 전기에도 꾸준히 提高되거나 유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관룡사는 전란과 홍수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창녕 일대 불교계의 전통 계승 노력과 함께 창녕 일대 유력 세력은 물론 고령, 밀양, 대구 등지의 문인들이 주목하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기 이래의 전통을 잇는 사찰이자 경상도 일대의 주요 사찰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룡사의 사격과 관련하여, 772년(혜공왕 8)에 미륵불상이 조성된 이유, 창녕 주변의 여러 화엄 사찰과의 구체적인 교류 실상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修山集》 《巖棲集》 《昌舍集》 《崔文昌侯全集》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

文化財廳, 《觀龍寺 大雄殿 修理報告書》,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 해체수리 자료집》 사
찰건축편, 2010.

2. 논문

金周泰, 〈觀龍寺大雄殿上樑文〉 《考古美術》 6권 10·11호, 1965.

박홍국,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풍
우(風雨) 마모흔 고찰〉 《科技考古研究》 22, 2016.

유경희, 〈朝鮮 後期 白衣觀音壁畫의 圖像과 信仰 研究〉 《美術史學研究》
265, 2010.

임영애,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
제〉 《新羅文化》 47, 2016.

張日圭,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26, 2012.

蔡旼錫, 〈昌寧 觀龍寺 龍船臺 石佛坐像의 조성 배경과 檀越 세력〉 《新羅史
學報》 41, 2017.

崔卿賢, 〈19世紀의 寺刹 壁畫 研究—一般繪畫를 中心으로〉 《文化史學》 38,
2012.

崔聖恩,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
각—〉 《新羅史學報》 16, 2009.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
면〉 《韓國史研究》 95, 1996.

河日植, 〈昌寧 觀龍寺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事蹟記》〉 《韓國古代史研
究》 12, 1997.

ABSTRACT

昌寧觀竜寺の歴史と寺格

張 日 圭

觀竜寺の歴史は文化財と文献資料などを通じ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現在伝える仏菩薩像や壁畫、複數建物などの文化財は8世紀と17世紀前半～19世紀前半の姿を見せてくれる。「觀竜寺事蹟記」と複數の建物の上樑文は15世紀前半～19世紀前半の觀竜寺の狀況が記録された。このほか、いくつかの文人の文集でも17世紀～20世紀当時觀竜寺の姿が確認される。

觀竜寺の創建時期は明確に知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伝承によると、元曉と関連して「觀竜寺」と呼ばれた。その後、聖徳王時竜船台石造如来坐像を見つける巡礼者や祈禱者が滞在寺刹で機能したが景德王時と恵恭王とき相次い仏事を設行した。竜船台石造如来坐像は9世紀に造成されたが、薬師殿石造如来坐像と薬師殿前三層石塔の奉安と造成、薬師殿建立は高麗時代に行われた。觀竜寺の法灯は6世紀以来統一新羅時代と高麗時代を経て、壬辰倭乱以前も着実に繋がってきた。

壬辰倭乱とき觀竜寺は薬師殿だけ残してすべて燃えた。復元仏事はだいたい17世紀に集中的に設行された。このとき以前の建物を重創ながら、新しい殿閣を集中建立し、仏菩薩像を製作して奉安し周邊に散らばった庵子も境内に移した。觀竜寺は漸次大刹の面貌を備えたが、1704年7月に觀竜寺一帯に多くの雨が降り建物のほとんどが

毀損た。その後、着実に復元仏事が進行されたが、殿閣の数や規模は以前よりも減少した。1749年から既存殿閣を重創ながら以前に位置した殿閣を新たに建立する仏事が続けられながら、1733年に「観竜寺事蹟記」を撰述したりした。

順表が主管した仁陽寺仏事でああのように、昌寧一帯の寺刹は昌寧一帯の有力勢力、新羅朝廷や王京の寺刹と緊密に関係した。観竜寺で元暁が《華嚴経》を講経たという伝承は新羅末以来昌寧周邊の盤竜寺、玉泉寺など華嚴寺刹の影響が観竜寺に及ぼしを知らせるが、それは高麗末まで維持された。また、朝鮮初から元暁の著作が含まれている「初発心自警文」が刊行された、刊行は観竜寺でも進行されたので、観竜寺の寺格は朝鮮前期にも提高たり、維持された。観竜寺は朝鮮後期に至って戦乱と洪水に相当被害を被ったが、続いた重創仏事に昌寧一帯仏教界の伝統を継承しつつ、昌寧一帯有力勢力はもちろん高靈、密陽、大邱等地の文人たちの注目を受け、近代に至るまで慶尚道一帯の主要寺刹で桁た。

キーワード：昌寧, 観竜寺, 観竜寺事蹟記, 元暁, 仁陽寺, 華嚴仏教

논문 투고일 : 2018. 11. 14. 심사 완료일 : 2018. 12. 3. 게재 확정일 : 2018. 12. 6.